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한나라당 새 대표를 선출하기 전당대회 막이 올랐다. 13명의 후보들이 쇠신, 화합, 세대교체 등을 내세우며 당권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새 대표의 6·2 지방선거 참패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2012년 총선 공천과 차기 대선을 관리해야 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

이후에도 허구한 날 친박-친박간에 싸움만 하면서 국민들의 혐오감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선거 직후 한국정책과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싫어하는 정당' 비율에서는 한나라당(32.7%)이 민주당(17.1%)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대의원 혁명만이 한나라당이 살 길

다. 더구나 0점(아주 조금 싫어함)에서 10점(아주 많이 싫어함)사이의 혐오 점수에서 한나라당은 7.23점으로 민주당(5.64점)에 비해 훨씬 높았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이 참패했을 당시 혐오점수는 7.30점으로 한국의 한나라당 혐오점수와 비슷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야당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8.5%가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해서'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여당이 싫어서'가 20.0%였다. 이런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한나라당 쇠신의 핵심은 기존의 한나라당 혐오감을 불식시키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계파를 해체하고 보수 가치를 살

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당내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다.

그런데 변화와 쇠신을 기치로 내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이런 민심에 역행하면서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너도나도 이심(孝心), 박심(朴心)을 들먹이며 저질을 향한 고공행진만 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내가 진짜 성공 친이다"고 떠들며 다니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박 전 대표가 내 사무실을 먼저 왔다" "박 전 대표가 최근 전화를 했다"는 유치한 말을 버젓이 하고 있다. 심지어 "박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출마했다"고 노골적인 '박근혜 마케팅'을 구사하기도 하고 '박심은 스

△△'라는 낯 뜨거운 플래카드를 내건 후보도 있다.

결국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은 없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체 계파 정치라는 자리에서 헛바퀴 돌고 있을 뿐이다. 이런 뒤틀리고 비틀어진 전당대회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의원들의 혁명뿐이다.

2001년 4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비주류의 대표주자로서 '탈과벌'과 '개혁'을 내세운 고이즈미 준이치가 선출됐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지방당원이 참여하는 예비선거 141표, 중의원과 참의원이 참여하는 본선거 346표를 합산해 과반을 넘는 후보가 당선된다. 고이즈미 후보는 과반수를 웃도는 298표를 획득해 155표를 얻은 주류의 하시모토 류타로 후보를 누르

고 결선투표 없이 총재로 당선됐다.

구태의연한 자민당 체질로는 생각하기 힘든 과격적인 언동으로 일본 정가에서 '과짜 정치인'으로 불렸던 고이즈미가 당선된 것은 본선거에 앞서 지방당원을 상대로 실시한 예비선거에서 '대의원의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방 대의원을 이 계파 투표보다는 자민당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방 당원들은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무계파 차세대 정치인 고이즈미를 압도적인 지지로 자민당의 미래로 받아들였다. 여기에 부흥해 고이즈미는 내각 인사에서 통상적인 파벌 안배 관행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간인과 여성각료에 대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등 '파벌 파괴'에 앞장섰다. 고이즈미의 이런 신선하고 창조적인 파괴 행위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서 자민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나라당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도전 정신과 창조적 파괴이다. 대의원들이 진정 한나라당을 사랑하고 정권재창출의 미래를 원한다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을 혐오스러운 정당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 이심-박심 거들먹이며 호가호위했던 사람, 정책과 비전 없이 지역주의와 색갈론에 몰두했던 사람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화하고 철저히 감옥에 갇혀야 할 것이다.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최악의 지방경제 정부·정치권 방치 활건가

지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각종 경제현황이나 지표만 보더라도 광주·전남의 경제여건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광주상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기업은 28개사로 전체의 2.8%에 그치고 있다. 매출액 역시 24조 1082억원으로 전체 1731조5486억원의 1.4%에 불과하다.

현재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중인 상능건설, 우미건설 등 7개 업체가 1000대 기업에서 밀려났고 28개 기업에 포함된 남양건설과 금광건설이 법정관리 상태여서 상위 1000대 지역기업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지역경제를 방치하고 있던 건설업 등이 초도화되면서 체감실업률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체감실업률은 각각 7.4%, 13.6%로 전국 평균(광역 5.7%·광역외 9.1%)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붕괴는 연관산업의 부재를

부르고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먼저 정부나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경제적 기반이 이렇게 취약한 데도 역대 정부가 방치해 왔고 현 정부도 무관심으로 일관한 게 사실이다. 작금에 건설사와 관련업체가 잇따라 붕괴되는 등 최악의 위기 국면인데도 지역 정치권이 한 일은 '선거'가 전부다.

정부는 체감경기와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의 회생과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각종 규제 완화와 미분양아파트 해소 방안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방건설업 등을 살려야 한다. 세종시로 이전이었던 대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올인 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모두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다.

감동 전한 '영암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

익명의 기부자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사달라며 거액을 기탁해 감동을 주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한 남성이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 3억3000만원을 익명으로 기탁했다. 이 남성은 이 돈으로 영암과 인근 목포지역 저소득층에게 쌀과 생필품을 보내달라는 뜻을 밝혔으며 특히 자신의 신분은 절대 비밀에 부쳐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타 지역 출신으로 영암과 목포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얼굴없는 천사'의 아름다운 선행은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담양군청에 2억원이 익명으로 배달돼 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주 북구에는 명절이면 배와 굴 등 과일을 기탁하는 '과일 기부천사'가 있고 순천과 완도, 영광 등지에서도 매년 쌀과 금품을 보내는 독자기자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기부자들은 나

보다 덜 가진 자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 건강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기부나 봉사활동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선행' 내달라는 뜻을 밝혔으며 특히 자신의 신분은 절대 비밀에 부쳐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타 지역 출신으로 영암과 목포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부 바이어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최고부자들이 최고기부자'라는 수식어 붙을 만큼 사회지도층의 기부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매년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자선은 곧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부터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스위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편지지 넣기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참가한 학생 24명 가운데 16명은 2명씩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8명은 다른 방에서 각각 봉투 작업을 하게 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한 방에 들어간 2명은 4시간 동안 평균 221개를 마쳤지만, 혼자 작업한 학생은 이보다 31개(16.3%) 적은 190개에 그쳤다. 결혼일 때 배울 수 있고 경쟁 심까지 자극하는 동료 가 옆에 있어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인 것이다.

이런바 '동료효과(Peer Effect)'다. 우레네 일상에서도 동료의 영향을 받아 행동이나 사고 방식을 바꾸는 사례가 많다. 성적이 좋은 친구가 보는 참고서를 사본 다든가, 일 잘하는 동료에게 지지 않으려는 것 등이 전형적인 예다. 긍정적인 동료효과란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과를 강조하면 잘못된 동료에 대한 불만 표시, 과도한 경쟁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프로야구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연패 수렁에 빠졌다. 창단 이후 최악이다. 'V 10 전설'을 썼던 팀이라고 믿겨 지지 않을 정도로 그 원인을 두고 입을 하게 했다.

대표적으로 팀 워크의 붕괴가 거론된다. 지난해 KIA는 희생의 팀이었다. 말형부터 막내까지 그라운드에서 살신성인했다. 타석에서는 팀 배팅을 했고, 설혹 백투를 지키는 일도 있어도 더 큰 목소리로 응원했다.

올해는 정반대다. 타석에선 한방만 노린다. 병살타는 단연 1위다. 투수들은 자신이 등판한 경기에서 팀이 역전을 허용하면 의자를 던지거나 자해하는 등 분위기가 짙

아졌다. 동료에 대한 불신이다. 그 사이 KIA만의 패배공식이 생겼다. 선발 후투-완루 타격-불펜 난조-수비 실책-역전패로 급락하는 공포의 '청룡열차'다. 별의 별 수를 써도 효과가 없는 모양인데, '네 새 옷'부터 그만두는 것이 어떨지.

/김주석 여론매체부장 jnews@

'KIA 공식'



기고

이영석



주택건설업계의 몰락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취약한 지역경제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미분양 재고의 누적에서 비롯된 유동성의 저하 ▲건설업계의 부실화가속 ▲주택공급 물량 급감 ▲실수요자의 구매력 감소 ▲주택가격 인하 요구 ▲재정시 문제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세급 폭탄이 미분양폭탄으로 부메랑이 되어

그러나 이들은 지방의 미분양 완화 정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세집으로 이사하려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의 길이 막히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세계 각국의 대도시 고소득층이었다면, 현재 저소득층은 거주이전을 제한당하는 계층은 중저소득층이다.

현재 우리의 주거지 건설산업은 환경의 질보다는 공급주택의 물량이나 규모

'자연'의 가르침

돌아왔다. 참여정부에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의 강화는 아쉽게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웠고, 이는 정권교체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시행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완화는 이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산업구조로 전환된 대기업들의 성장에 일조한 결과,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력을 저하시켜 대형보다 중형이, 중형보다 중소형의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역전(逆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불패론'을 잠재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신화의 실현을 보며 이제까지 중대형을 지지하던 정부 정책의 진실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주거지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아파트 가격조정은 정상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던 지역은 표정관리 차원에서 침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붕괴를 우려한 정부는 소득에 따른 대출제한(DTI)을 규제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면제시켜주고 있다.

에, 수요자의 구매력 안정보다는 공급자의 가격유지에, 지방의 미분양 해소보다는 수도권의 민심이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면초가에 달렸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살지 않지만 정권의 운명은 부동산·건설정책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시와 4대강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심화되고 있는데,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가 미래의 비전을 담은 거대도시의 건설과 국민의 생명과 삶의 근원인 하천의 정비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세와 인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과 자연에서 배워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하고, 자제할 능력이 있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의료 칼럼

주종대



햇살이 강렬한 여름이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 또한 수은주와 함께 높아지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소중한 눈이 물살을 앓고 있다.

바로 강력한 자외선과 냉방기, 선풍기에 의한 건조 현상이다. 또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바닷가나 풀장 등지에서 물놀이를 할 때 감염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한 자외선은 백내장을 유발하는 최

악어건 통풍구가 눈을 향하지 않도록 하고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 눈의 건조함을 막는 게 좋다. 직장인의 경우 사무실에서 컴퓨터 사용시 50분 작업 후 5~10분 정도 휴식을 취해주며, 컴퓨터 화면의 높이를 눈보다 10~20cm 아래로 낮춰 눈 건조 현상을 줄인다.

여름 렌즈관리도 중요하다. 물에 들어갈 때 콘택트렌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경이나 도수 있는 물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외선과 냉방기에 우는 눈

대의 적이다. 하루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이 시간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해 되 외출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눈을 보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햇살이 눈부신 해변이나 모래사장, 골프장, 강가의 물 반사, 하얀 대리석 건물의 반사광 등은 자칫 각막화상을 부른다. 특히 시력교정수술이나 노안교정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여름철에 무엇보다 자외선에 주의해야 한다.

선글라스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율을 높이고 UV-A, UV-B, UV-C를 차단할 수 있는 코팅렌즈가 필수다. 가장 적절한 컬러 농도는 75~80%로 녹색 선글라스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며 해변이나 운동시 적합하다.

자외선 못지않게 눈을 위협하는 것은 과도한 냉방 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이다. 여름철 안과를 찾는 환자 중 10%가량은 안구건조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처럼 냉방이 잘되는 곳에서 눈이 뻑뻑해지거나 피로를 느낀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평소 안구 건조 증세가 있는 사람은

렌즈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일회용 렌즈를 사용하고 바로 빼서 버리는 것이 좋다.

침단과 화학의 힘을 빌리자면 요즈음 라식, 라섹 수술이 보편화 되어 많은 이들이 여름휴가철 전에 수술을 하고 렌즈 부착용 등의 우려 없이 휴가를 즐기기도 한다.

최근 다양해진 라식의 방법 중 다빈치 라식은 '펄드세션 레이저'를 사용해 빠르고 정밀하게 각막절편을 생성하는데, 기존 라식방법(마이크로 케라톰)에 비해 각막 접합률이 3배나 향상되었고 보다 명확하고 선명한 시력까지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100% 컴퓨터 제어로 균일하게 각막을 절제하기 때문에 각막 주변부가 매우 부드럽고 매끄럽게 생성되어 난시 유발 및 야간 빛 번짐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며 특히 다음날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수술부위의 안정성 및 시력회복속도가 빠르다. 이는 요즘 같은 휴가철이나 주말 또는 연휴, 연차 등을 이용해 수술을 받고 바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밝은안과21 원장〉

남녀 성장의류 치수, 매장마다 통일했으면

의류매장에서 옷을 살 때마다 사이즈만 보고 구입해 결국엔 바꾸러 간 경험 한두 번이 아니다.

종류에 따라, 그리고 상표에 따라 치수 표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55 사이즈라 권

해서 입었는데 생각보다 여계가 너무 크고 길이가 너무 길다면, 혹은 여계가 맞는 데 길이가 짧다면 하는 식이다.

여성들이야 아야는 거지지만 여성복 55 사이즈는 키 155, 가슴둘레 85cm의 뒷자리 수

자에서 따온 것이다. 하지만 같은 사이즈라 해도 옷의 종류나 브랜드에 따라서 크기는 제각각이다. 한번은 같은 사이즈인데 왜 이렇게 제각각이냐고 물어보니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고객 성향이나 연령대에 맞춰 그 특색을 따르다 보니 그렇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옷을 사러 가도 남성 정장엔 588, 688 같은 세 자리 숫자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순서대로 키와 가슴둘레, 허

리둘레를 가리킨다. 가령, 치수 688의 6은 175cm의 키, 8은 가슴둘레 100cm 끝자리 8은 허리 34인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서모간에 약속된 것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바로 산업표준이고 일상생활의 중요한 약속이다. 이런 걸 회사 맘대로 바꿔서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윤현숙·순천시 안동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details.